

'2024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매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는 <2024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상반기 결산>과 최근 5년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총 거래액은 **약 9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미술 경기가 좋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63% 수준으로 여전히 침체 국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을 비교할 경우, 2023년 약811억원, 2022년 약1446억원, 2021년 약1438억원, 2020년 약490억원, 2019년 약826억원 등이었다.

특히 **낙찰률 49.8%**은 지난 5년간 낙찰률(2023년 52.1% · 2022년 65.3% · 2021년 65.4% · 2020년 64.5% · 2019년 65.8%) 중 처음 50% 이하로 내려갔다. **총 출품작 역시 3,806점이 줄어든 11,045점**(2023년 14,851점 · 2022년 15,766점 · 2021년 16,822점 · 2020년 14,224점)이었으며, **낙찰작품은 무려 2,215점이 줄어든 5,509점**(2023년 7,724점 · 2022년 10,296점 · 2021년 10,999점 · 2020년 9,173점 · 2019년 낙찰 8,199점)에 그쳤다.

낙찰총액 1위는 김환기 작가가 약 60억원, 낙찰률은 64%로 2019년 이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2019년 대비 낙찰총액은 약 85억원 정도가 떨어졌으며, 낙찰률도 처음 60% 대인 것으로 볼 때, 현재 국내 미술시장의 경기를 주도했던 블루칩 작가마저 주축할 정도로 위축됐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3년 이우환 낙찰총액 72억원, 낙찰률 54.03% / **2022년** 이우환 낙찰총액 200억원, 낙찰률 75.5% / **2021년** 이우환 낙찰총액 187억원, 낙찰률 86% / **2020년** 이우환 약 61억원, 78.26% / **2019년** 김환기 약 145억원, 70.59% / **2018년** 김환기 약 214억원, 87.5%)

경매사별로 살펴보면 **서울옥션이 약536억원**(지난해 286억원)로 약248억원인 케이옥션을 큰 차이로 추월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낙찰총액 1위 경매사의 평균 낙찰률이 49.27%(2위 케이옥션 44.65% · 3위 마이아트옥션 52.75%)라는 점은 고가의 낙찰 작품의 낙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서울옥션 낙찰총액에는 지난 6월 25일 국내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미술품 경매로 진행해 낙찰된 219억원이 포함됐다. (<THE PALACE 73 by RICHARD MEIER>, 133.16㎡, 219억(21,900,000,000), 타입 오피스텔 OA801, 서울옥션, 2024.06.25.)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김영석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침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서울옥션의 첫 오피스텔 경매처럼, 미술품 경매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위축된 경매시장의 분위기는 갤러리와 작가 및 시장 종사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위기의식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콘텐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부양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분석했다.

최고 낙찰가 1위는 지난 3월 서울옥션에서 낙찰된 김환기의 3-V-71#203(213.3×152.6cm) 50억원이 차지했다. 이는 2023년도를 제외하고 그동안 낙찰가 1위를 고수해온 해외작가의 작품 대신 한국의 근현대 작품이 탈환했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으로 여겨진다. 뿐만아니라 낙찰가 10위 안에 해외작가가 아닌 한국 근현대 작가들 위주로 분포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23년 최고 낙찰가 1위 백자청화오조룡문호 70억원 / 2022년 최고 낙찰가 1위 쿠사마 야요이 44억원 / 2021년 마르크 샤갈 42억원 / 2020년 쿠사마 야요이 14억5천만원 / 2019년 르네 마그리트 72억4천만원)

최고가 상위 10순위 중엔 각기 다른 작가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생존작가 4명, 해외작가 1명으로 작년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별 낙찰총액 상위 5순위는 **1위 김환기(약60억원 · 63.6%)**, **2위 이우환(약 30억원 · 58.0%)**, **3위 윤형근(약29억원 · 88.8%)**, **4위 박서보(약25억원 · 70.4%)**, **5위 쿠사마야요이(약25억원 · 65.6%)** 등으로 집계됐다. 김환기는 2019년에

이어 새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9년 73%에 비해 그동안의 최저 낙찰률인 63%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해외 작가 중엔 쿠사마 야요이를 제외하곤 사라져 주목됐다.

(2023년 1위 이우환 약72.2억원 · 54%, 2위 김환기 약41.2억원 · 62%, 3위 유명국 약37.6억원 · 91.6%, 4위 박서보 약37.3억원 · 58.7%, 5위 쿠사마 야요이 약34.2억원 · 57.7%)

참고로 지난해 10순위 중 생존작가는 4명으로 60%를 차지했고, 아야코 룩카쿠(일본)만이 40세 전후 젊은 작가로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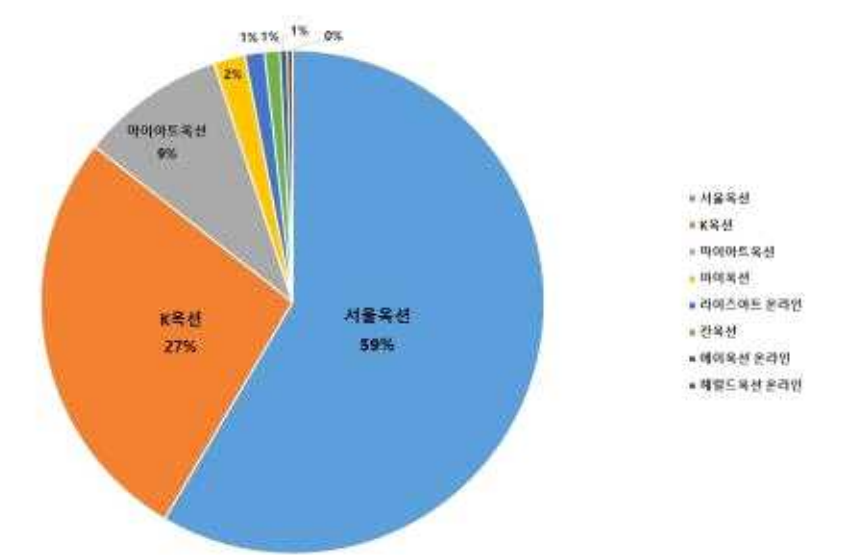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8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에서 올해 1월~6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결과이다. 다만 06/27 칸옥션 오프라인, 06/28 에이옥션 온라인 제외되었다.

2024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부문별 결산 도표 및 그래프

1. 경매사별 총 낙찰총액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53,674,050,000	2,464	1,214	49.27
K옥션	24,897,271,000	3,778	1,687	44.65
마이아트옥션	8,558,770,000	563	297	52.75
아이옥션	1,857,870,000	1,879	1,150	61.20
라이즈아트	1,156,480,000	1,220	679	55.66
칸옥션	909,900,000	287	148	51.57
에이옥션	421,160,000	636	413	64.94
헤럴드옥션	314,410,000	967	281	29.06
총합계	91,789,911,000	11,045	5,509	49.88

2. 경매사별 비중도



서울옥션과 K옥션 양대 경매사 비중이 86%를 차지해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이나, 마이아트옥션의 약진이 눈에 띈다.

3. 2024 상반기 국내 경매 낙찰가 1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김환기	3-V-71#203	213.3×152.6cm	oil on cotton	1971	5,00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2	이중섭	시인 구상의 가족	32×49.5cm	종이에 유채, 연필	1955	1,400,000,000	K옥션	2024.04.24
3	안중근	인심조석변산 색고금동	33.8×137.2cm	ink on paper	1910	1,300,000,000	서울옥션	2024.02.27
4	박서보	묘법 No. 10-78	130.3×162.2cm	마포에 유채, 연필	1978	1,000,000,000	K옥션	2024.05.22
5	김창열	물방울 ABS No 2	198.8×123.5cm	oil on hemp cloth	1973	980,000,000	서울옥션	2024.06.25
6	이우환	바람과 함께 S8708-5	130.3×162.2cm	캔버스에 안료	1987	950,000,000	K옥션	2024.03.20
7	김창열	물방울	162×130cm	oil on linen	1976	95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8	강세황	두운지정화첩	21.8×44.3cm외	종이에 먹, 종이에 수묵채색		850,000,000	마이아트옥션	2024.05.30
9	윤형근	Umber '90-66	161.8×227cm	oil on linen	1990	70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10	박래현	이른 아침	240.7×182cm	ink and color on paper	1956	650,000,000	서울옥션	2024.01.23

4. 작가별 낙찰총액 10순위 작가 (생존작가 4명, 40%. 해외작가 1명, 40세 전후 0명)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김환기 (1913~1974)	6,000,200,000	14	22	63.64
2	이우환 (1936~)	2,984,260,000	58	100	58.00
3	윤형근 (1928~2007)	2,956,600,000	16	18	88.89
4	김창열 (1929~2021)	2,565,100,000	62	88	70.45
5	쿠사마 야요이 (1929~)	2,500,350,000	42	64	65.63
6	박래현 (1920~1976)	2,339,500,000	25	64	39.06
7	박서보 (1931~2023)	2,138,350,000	48	100	48.00
8	이배 (1956~)	1,892,090,000	40	57	70.18
9	이중섭 (1919-1956)	1,550,000,000	2	3	66.67
10	전광영 (1944~)	1,324,500,000	22	23	95.65

5. 장르별 비중도

